

Kim Gwang-seok in the Era of AI-Generated Music Excess Identity and the Return to Analog Sensibility

Ham, Hyun-taik

Independent Researcher

jaqueham@naver.com

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explores how human sensibility is being reshaped in an age saturated with AI-generated music, algorithmic curation, and content overproduction. Centering on the enduring appeal of Kim Gwang-seok's work, it examines why his music continues to resonate despite the rise of polished, standardized forms. The study highlights the cultural significance of a return to the "slow and rough" and considers how musical identity and authenticity are being redefined in the era of AI.

Methods The study draws on cultural theories—such as Baudrillard's hyperreality, Debord's spectacle, and platform capitalism—alongside current research on AI-driven content production. It also examines Kim Gwang-seok's life, songs, performance style, and commemorative spaces to interpret the sensibility within his musical world. Through qualitative analysis combining literature review, textual interpretation, and sonic analysis, the study explores issues of musical consumption, memory, and identity in the AI era.

Conclusions The findings show that, amid the excess and technical polish of AI-generated music, Kim Gwang-seok's work offers a human counter-sensibility grounded in imperfection, everyday life, and relational emotion. His music provides emotional depth that technology cannot replicate, suggesting the need for slower, more reflective practices and a renewed understanding of authenticity in the AI era.

Keywords AI-generated digital music, Kim Gwang-seok, authenticity, hyperreality, aesthetics of imperfection, analog sensibility, regressive emotion

<https://www.ijkculture.com>, DOI: doi.org/10.23159/IJKC.2025.12.312.006

Received: 2025 ; Reviewed: 2025 ; Accepted: 2025

pISSN 2951-2808 eISSN 2951-2883

AI 기반 디지털 음악의 과잉 시대, ‘김광석’의 가치와 의미 : 정체성과 아날로그 감성의 회귀

함현택

목 차

1. 서론
2. AI 기반 디지털 음악 콘텐츠의 범람 시대, 성공과 이면의 모습
3. AI 기반 디지털 음악 콘텐츠의 시대, 가수 김광석의 소환
4. AI 기반 디지털 음악 콘텐츠의 시대, 김광석 음악의 문화적, 정서적 의미
5. 마무리와 과제

1. 서론

‘K-pop 데몬헌터스’, ‘BTS’, ‘오징어게임’. 오늘날 대한민국은 ‘K-팝’, ‘K-드라마’, ‘K-푸드’로 표상되는 이른바 ‘K-콘텐츠’를 통해 세계 문화시장에서 눈에 띄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되기까지, OTT 플랫폼과 스트리밍 서비스, 숏폼 콘텐츠의 대중화를 통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졌고, 빅데이터 기반 추천 알고리즘은 국경을 넘나드는 확산 속도를 가속화했다. 그 결과 한국의 문화산업은 건국 이후 가장 넓은 국제적 파급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눈부신 성취 뒤에는 쉽게 언급되지 않는 문제도 숨어 있다. 폭발적 성장 속도에 맞춰 정체성과 창작의 깊이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K-콘텐츠는 세계적 대중성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공통된 서사 구조, 감정 공식, 포맷을 반복하는 경향을 강화해 왔다. 특히 플랫폼 알고리즘이 선호하는 ‘빠른 진입, 강한 자극, 높은 체류시간’ 중심의 제작 방식

은 창작자의 고유한 목소리와 세계관을 드러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내고 있다. 산업적 성공과 개별 콘텐츠의 정체성 약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중 구조는 앞으로 한국 문화가 어떤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여기에 생성형 AI의 급격한 발전은 콘텐츠 생태계 전반에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만들었다. 텍스트, 이미지, 음악, 영상뿐 아니라, 특정 가수의 음색과 감정선까지 자동 생성할 수 있는 기술이 등장하면서 ‘그럴듯한 창작물’을 만드는 일은 더 이상 고도의 훈련이나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창작의 진입장벽은 사실상 사라졌고, 콘텐츠는 끝없이 양산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생산의 손쉬움은 다른 질문을 낳는다. 무엇이 창작물인가? 누가 창작자인가? 감정은 어디서 오는가?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가 말했듯, 시뮬라크르가 현실을 압도하는 시대에는 진짜와 모사가 뒤섞이며 실재의 감각이 희미해진다.¹ 오늘날 AI가 만드는 방대한 콘텐츠는 바로 그 경계를 더욱 흐릿하게 만들고 있으며, 인간 고유의 감수성과 경험은 오히려 새로운 희소성을 지닌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90년대에 짧은 활동을 마쳤음에도 지금도 강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가수 김광석을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의 음악은 화려한 퍼포먼스나 거대 서사, 아이돌 시스템을 중심축으로 하는 현대 K-콘텐츠와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기타와 피아노, 최소한의 편곡, 소시민의 삶을 담은 노랫말, 떨리고 갈라지는 목소리—모든 요소가 요즘 디지털 음악이 보정하거나 삭제해 버리는 그 ‘투박함’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도 김광석의 노래는 세대를 가로질러 되살아나고 있으며,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오히려 그 울림은 더 깊어지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향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콘텐츠 구조 속에서 사라져 가는 인간적 감정의 깊이를 다시 찾으려는 문화적 움직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콘텐츠의 폭주와 AI 기반 음악의 확산 속에서, 가객(歌客) 김광석의 음악이 지닌 예술적, 정서적, 문화적 의미를 다시 해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그의 노래가 보여주는 ‘투박함으로의 회귀’는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려는 감정이 아니라, 기술 중심 시대가 놓치고 있는 감정, 윤리, 정체성의 가치를 되짚어 보게 하는 중요한 실마리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김광석의 음악을 분석함으로써, 디지털 기술이 감정과 창작의 구조를 뒤흔든 시대에 인간적 감수성이 어떤 방식으로 새롭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1 보드리야르 장. (2012). 시뮬라크르와 시뮬라시옹. 민음사.

2. AI 기반 디지털 음악 콘텐츠의 범람 시대, 성공과 이면의 모습

2.1. 디지털 콘텐츠의 범람, 생성형 AI가 만든 ‘생산의 폭발’

21세기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콘텐츠 생산의 속도와 규모를 기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시켰다. 그러나 이 변화를 결정적으로 가속한 요인은 바로 생성형 AI의 등장이다. AI는 더 이상 특정 전문가만 다루는 기술이 아니라, 스마트폰 수준의 접근성을 갖춘 일상적 생산 도구가 되었다. 단순한 텍스트 입력만으로도 키워드 추출, 문장 구성, 개념 생성, 콘텐츠 기획이 가능하며, 과거에는 수많은 제작 단계가 필요했던 작업이 이제는 단일 인터페이스 안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

음악의 경우, 한 사람의 사용자가 프롬프트 몇 줄로 작사, 작곡, MIDI 편곡, 보컬 합성, 믹싱을 순식간에 수행할 수 있다. 영상 분야에서는 장면 생성, 편집, 자막, 색보정, 음악 삽입 등의 복잡한 과정이 자동화되며, 이미지 제작 영역에서는 사진, 일러스트, 3D, 웹툰까지 AI가 대체하거나 지원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과거라면 전문 기술자, 기획자, 엔지니어, 편집자가 합작해야 했던 일들이 이제는 개인 수준에서 완결된다.

이 변화는 단순한 ‘효율화’가 아니라, 콘텐츠 제작 생태계 전반의 구조 재편을 의미한다. 생산의 장벽이 낮아진 만큼 콘텐츠는 폭발적 증가를 보이며, 디지털 플랫폼은 이 방대한 양을 무한 스크롤 형태로 축적, 유통한다.

특히 플랫폼은 “끝없이 이어지는 피드(feed)” 구조를 통해 콘텐츠가 끊이지 않고 재생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 구조는 생산자에게 지속적인 업로드를 요구하고, 소비자에게는 멈추기 어려운 경험을 제공한다. 그 결과 콘텐츠는 더 빠르고 더 많이 생성되며, 이를 소비하는 시간보다 생산되는 속도가 훨씬 앞서게 되었다. 콘텐츠의 과잉 생산은 이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 자체가 만들어낸 구조적 조건이 되었다. 이 조건은 이후 알고리즘 추천 시스템의 강화, 감정 소비의 획일화, 하이퍼리얼리티적 감수성의 지배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2.2. 알고리즘이 만든 콘텐츠 소비 방식의 재편

디지털 콘텐츠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사용자의 ‘주의(attention)’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플랫폼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되었다. 이것은 알고리즘 기술의 고도화를

촉발했다. 닉 스르니첵(Nick Srnicek)이 플랫폼 자본주의에서 지적했듯,² 오늘날 플랫폼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은 “사용자의 시간을 수집, 분석하여 다시 판매하는 것”이다. 즉, 플랫폼의 상품은 콘텐츠가 아니라 사용자의 주의력 자체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시청 기록, 머문 시간, 클릭 패턴, 감정 반응 등을 분석하여 ‘떠나지 않을’ 콘텐츠를 자동 추천한다. 사용자는 스스로 선택한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플랫폼이 설계한 감정 동선 속에서 움직이게 된다. 즉, 콘텐츠 소비는 능동적 선택에서 알고리즘에 의한 정서적 유도로 전환된다.

음악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더 극명하게 나타난다. 스트리밍 플랫폼은 청취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곡의 앞부분에 강한 인상을 남길 것을 요구하고, 그 결과 3초 안에 청취자의 귀를 붙잡는 구조가 제작의 표준이 되었다. 또한 플랫폼 알고리즘이 선호하는 BPM, 코드형식, 후렴 반복 패턴이 음악의 표준 공식으로 자리 잡았고, 창작자들은 ‘좋은 음악’보다 ‘알고리즘을 통과할 음악’을 고민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음악은 전체 서사를 감상하는 예술이 아니라, 짧고 강렬한 순간의 감정 자극으로 소비된다. 즉, 알고리즘은 음악을 짧은 감정 단위로 분절시키고, 인간의 감정 경험은 점차 플랫폼이 설계한 패턴에 따라 재편된다. 그 결과 듣고 싶은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음악을 소비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2.3. 하이퍼리얼리티의 심화: 불완전이 아닌 완벽함의 시대로

보드리야르의 하이퍼리얼리티 개념은 오늘의 디지털 콘텐츠 환경에서 더욱 극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영상과 음악은 과거보다 훨씬 더 고해상도, 고음질, 고정밀도를 갖추고 있으며, 색감, 리듬, 감정은 완벽하게 조율된 상태로 제공된다. 이것은 인간의 실제 감각을 능가하는 새로운 형태의 ‘초현실’을 만들어 냈다.

언뜻 이러한 완벽성은 콘텐츠의 질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를 살펴보면 ‘감정의 깊이’와 ‘삶의 질감’이 점차 사라지는 역설이 발생한다. 기술은 흔들림, 떨림, 잡음, 실수, 여백, 부정확한 호흡을 모두 제거하거나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콘텐츠는 매끄럽고 선명해지지만, 그만큼 인간적 감각의 미세한 흔적은 소거된다.

이 과정에서 감정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 형태로 조율되고 반복된다. 즉, 디지털

2 Nick Srnicek. (2017). Platform Capitalism. Polity Press.

스펙타클은 ‘감정의 정교함’을 제공하지만, ‘감정의 진정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³ 그 결과 청자, 시청자는 더 많은 감정 자극을 받지만, 감정을 깊게 경험하는 능력은 약화된다. 과도한 완벽함은 오히려 인간의 감정 구조를 단순화하고, 표준화된 감정 패턴만을 반복 학습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이와 같은 하이퍼리얼리티의 심화는 이후 K-콘텐츠의 산업적 구조와 결합하여, 정체성의 희석이라는 문제로 이어진다.

2.4. K-콘텐츠의 성공, 그 이면의 위기

K-팝과 K-드라마로 대표되는 한국 콘텐츠 산업은 치밀한 기획,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제작 방식, 팬덤을 중심으로 한 응답 구조, 그리고 고도의 시각, 음향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적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러한 체계는 단순한 문화상품의 성공을 넘어, 한국의 창작 시스템 자체가 하나의 표준 모델로 간주될 정도의 영향력을 갖추었다. 완성도 높은 제작 시스템, 실시간 피드백을 반영하는 유연한 구조, 플랫폼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포맷 설계는 K-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이었다.

그러나 시장 확장과 기술적 세련됨이 강화될수록 콘텐츠 내부의 정체성은 점차 약화되는 경향을 드러냈다. 세계 시장에서 통할 ‘안전한 감정 코드’가 반복적으로 호출되고, 이미 검증된 서사 구조가 다양한 변주를 가장한 형태로 재생산되며, 알고리즘의 선호에 맞춘 음악적 리듬과 패턴이 창작의 중심으로 이동한다. 이것은 콘텐츠의 질적 성장이라기보다, 알고리즘에 최적화된 감정 구조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며, 결과적으로 대중의 정서 경험을 점점 획일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그 과정에서 콘텐츠의 ‘외형적 다양성’은 풍성해 보이지만, 정작 내부의 의미 체계는 비슷한 감정 공식에 따라 작동하는 양상으로 수렴된다. 즉, 기술적 완성도와 글로벌 영향력은 높아지지만, 창작자가 지닌 고유한 감수성과 인간적 질감, 서사의 깊이는 점차 주변부로 밀려나는 구조가 형성된다. 산업적 성공이 곧 창작적 다양성을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성공의 구조가 정체성의 표준화를 강화하는 역설이 일어나고 있다.

이처럼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인한 콘텐츠의 폭발적 생산, 알고리즘 중심 소비, 하이퍼리얼리티 미학의 심화, 그리고 산업적 성공을 위한 K-콘텐츠의 반복적 구조가 맞물리면서, 오늘의 콘텐츠 생태계는 ‘완벽함, 속도, 과잉’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되는 시대적

3 가이 드보르. (1995). 스펙타클의 사회. 현실문화연구.

조건을 형성하게 되었다.⁴ 기술은 흔들림을 삭제하고, 알고리즘은 선택의 폭을 제한하며, 산업은 안전한 감정만을 호출한다. 그 결과 자극은 풍부해졌으나 감정의 깊이는 얕아지고, 콘텐츠는 늘었지만 정체성은 희미해지는 역설적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게 된다. 기계적 매끄러움이 기준이 된 시대에 인간의 흔들림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효율성과 자극이 지배하는 환경에서 느낌, 여백, 투박함과 같은 감정 구조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완벽하게 조율된 음악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왜 사람들은 오히려 불완전한 목소리에 더 깊은 울림을 느끼는가. 이러한 물음은 단순한 기술 비판이나 향수의 문제가 아니다. 콘텐츠의 생산 방식과 감정의 구조가 기계적 논리에 의해 재편되는 시대에, 인간 고유의 감수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재조명되는지, 그리고 예술적 정체성이 어디서 다시 힘을 얻게 되는지를 탐구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은 다음 장에서 다룰 가수 김광석의 음악적 감수성과 직접 연결된다. 기술적 완벽함과 감정의 표준화가 지배하는 환경 속에서, 김광석의 노래가 왜 다시금 특별한 울림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그의 투박함, 여백, 삶의 결이 어떤 방식으로 시대적 의미를 획득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다음 논의의 핵심이 될 것이다.

3. AI 기반 디지털 음악 콘텐츠의 시대, 가수 김광석의 소환

AI와 플랫폼 알고리즘이 음악의 생산과 유통·소비의 전 과정을 재편한 지금, 한 사람의 가수는 더 이상 단순히 ‘좋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라는 차원에서만 의미를 갖지 않는다. 디지털 작업실에서 무한히 복제, 합성, 편집 가능한 목소리들이 쏟아지는 시대에, 삶의 흔적을 담은 목소리, 특정 장소와 기억을 매개하는 존재, 집단적 감수성의 상징으로 기능하는 가수는 새로운 문화적 의미를 획득한다.

가수 김광석은 바로 이 지점에서, AI 기반 디지털 음악 콘텐츠 시대를 비추는 하나의 거울이자, 그 시대가 잃어버린 감수성을 되묻는 상징적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 한국 대중음악사 속에서 김광석의 위치를 간략히 짚은 뒤, 그의 노래가 지닌 정서적, 미학적 특징, 대표곡에 드러난 일상성과 책임 있는 슬픔의 감정 구조, 그리고 그를 둘러싼 기억, 장소, 추모 문화를 통해 AI시대의 문화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4 장동인. (2024). 생성형 인공지능이 가져올 사회적 잉여. 타우마제인.

3.1. 김광석의 한국 대중음악사에서의 위상

표면적인 지표만 보았을 때, 김광석은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상업적 성과나 제도권 평가 면에서 압도적 중심부에 위치한 인물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활동 기간 역시 길지 않았고, 생전의 음반 판매량이나 방송 출연 횟수만을 기준으로 하면 동시대의 몇몇 스타 가수들보다 눈에 띄게 많지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와 시대를 가로질러 그의 노래가 끊임없이 재소환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가 남긴 족적을 양적인 기준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김광석은 1970년대의 포크, 통기타 전통과 1980년대 민중문화 운동, 1990년대의 대중 발라드 시장을 관통하는 특이한 궤적을 지닌다. 한대수, 김민기, 조동진, 정태춘 등으로 대표되는 1970년대 포크 세대가 음악을 통해 현실 비판과 내면 성찰을 동시에 시도했다면, 김광석은 그 이후의 세대이면서도 이 전통의 정서를 이어받아 일상의 언어로 재구성해 낸 뮤지션이었다. 그는 1983년 김민기가 기획한 ‘노래를 찾는 사람들(노찾사)’에 합류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1987년 군 제대 이후에는 산울림의 김창완 등이 참여한 프로젝트 그룹 ‘동물원’의 보컬로 활동하며 대중의 폭넓은 사랑을 받았다.⁵

1989년 솔로 1집을 발표한 이후, 그는 점차 ‘노래패’나 밴드의 일원이라는 집단적 정체성을 벗어나 독립된 보컬리스트이자 해석자로 자신의 자리를 확립해 간다. 이 시기 그의 음악은 민중가요의 집단적 정서와 1990년대 발라드 시장의 대중성을 잇는 다리 역할을 수행했다. 사회적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앞세우기보다는, 개인의 내면에 각인된 상실, 불안, 막막함을 섬세한 언어로 포착하면서, 정치적 시대성을 일상의 감정으로 번역해 냈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또한 김광석의 음악 활동에서 특기할 점은 ‘공연’ 중심의 예술 실천이다. 그는 1993년 데뷔 10주년을 기념해 김민기의 소극장 ‘학전’ 등에서 한 달간 장기 공연을 열었고, 1995년에는 통산 1,000회 공연을 기록했다. 당대 대중음악의 주류가 가요 프로그램, 음악 차트, 방송 출연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었음을 고려할 때, 이같이 공연을 중심으로 관객과 호흡하며 음악 세계를 구축한 방식은 분명 주류의 통로에서 다소 비켜선 선택이었다.

이러한 행보는 오늘날 디지털 음원과 영상 클립, AI 합성 보컬이 실연(實演)의 감각을 대체해 가는 시대에 다시 의미 있게 읽힌다. 김광석이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은, 수치화된

5 이윤옥. (2009). 김광석 평전. 세창미디어.

순위나 알고리즘상의 노출량이 아니라, 공간을 공유한 몸, 목소리, 호흡을 중심으로 구축된 관계적 음악 경험이었다. 이 점에서 그는 AI 기반 디지털 음악 콘텐츠 시대에 “무대 위의 인간”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물음을 던지는 선례라 할 수 있다.

3.2. 김광석의 노래: 소시민의 정서와 인간적 목소리

김광석의 노래는 화려한 영웅 서사가 아니라, 소시민의 일상적 정서를 전면에 내세운다. 그는 웅장한 성공담이나 비극적 파국을 노래하기보다, 서른 살의 막막함, 이등병의 불안, 평범한 사랑과 이별, 버텨야 하는 삶의 무게를 다룬다. 이러한 주제들은 특별하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이들의 삶과 깊게 맞닿는다.

그의 음색은 중저음과 미성 사이를 오가는 독특한 질감을 지니며, 노래하는 방식은 ‘힘을 과시하는 보컬’이라기보다 ‘말을 건네는 화자’에 가깝다. 과장된 기교나 고도의 성량을 뽐내기보다는, 감정을 누르며 담담하게 흘러보내는 형태에 가깝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약간의 떨림, 숨이 턱 막히는 순간, 음이 살짝 흔들리는 지점 등은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감정이 몸을 통과하고 있다는 증거로 읽힌다.

『김광석 평전』을 집필한 이윤옥은 그의 노래에 대해 “삶의 군상들이 오롯이 한 자리씩을 차지하고 있다. 사랑만이 가치를 가졌던 짧은 날의 열정과 아픔, 변해가는 것과 잊혀져가는 것들에 대한 그리움, 홀로 남아 생을 살아야 하는 자의 외로움, 삶의 무게로 부대끼는 자의 힘겨움, 그리고 절망 끝에서 만나는 희망의 노래”라고 평한 바 있다.⁶ 이 평가는 김광석의 노래가 단순한 개인의 감정 표현을 넘어, 동시대인의 집단적 정서를 응축한 서사였음을 잘 보여준다.

공연에서의 그의 태도와 무대 연출 역시 이러한 노래의 성격과 맞닿아 있다. 김광석의 공연은 거대한 무대 장치나 화려한 퍼포먼스보다, 기타, 피아노, 드럼 정도의 단순한 악기 구성과 담백한 멘트, 관객과 나누는 짧은 대화로 채워졌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여주는 공연’이 아니라 ‘함께 머무는 시간’이었다. 그의 공연에서는 노래, 이야기, 공간이 한데 어우러져 응축된 친밀감을 형성했으며, 이것은 오늘날 대형 스크린과 특수효과에 의존하는 공연 문화와 뚜렷이 대비된다.

AI 기반 디지털 음악이 목소리를 합성하고 감정을 시뮬레이션하는 시대에, 김광석의 노래

6 이윤옥. (2009). 19.

가 여전히 강한 울림을 주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기계가 만들어 내는 완벽한 음정보다, 인간의 목소리를 통과한 삶의 흔적, 조금은 불안정한 떨림과 숨, 말하듯 이어지는 호흡이 더 진짜 ‘음악’처럼 다가오기 때문이다.

3.3. 김광석의 노래 대표곡 분석: 일상과 불안, 그리고 책임 있는 슬픔

김광석의 대표곡들은 각기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일상의 정서, 불안, 책임 있는 슬픔이라는 정서 구조를 공유한다. 몇몇 곡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1) 「서른 즈음에」, 나이 들과 자기 성찰의 서사

「서른 즈음에」는 개인의 내밀한 독백 형식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서른’이라는 나이가 지닌 사회적, 심리적 무게를 섬세하게 드러낸다. 이 노래에서 화자는 거창한 이데올로기를 말하지 않는다. 다만 “또 하루 멀어져 간다”는 체념 섞인 문장 속에, 취업, 결혼, 안정, 가족 등 사회가 부여한 통과의례를 조용히 짊어진 한 사람의 막막함을 녹여 넣는다.

편곡 역시 이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으로 구성된다. 피아노와 기타, 절제된 스트링 정도가 덧입혀져 있을 뿐, 감정을 과도하게 고조시키는 장치는 등장하지 않는다. 슬픔은 폭발하는 대신, 서서히 스며들며 끝내 뚜렷한 결론에 이르지 않는다. 이 ‘결론 없는 슬픔’은 청자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떠올리게 만들고, 각자의 서른, 각자의 시간을 조용히 꺼내 보게 한다.

(2) 「이등병의 편지」, 제도와 개인의 감정이 교차하는 지점

원곡은 김현성이 만들고 불렀으나, 이 노래를 한국인의 정서에 깊이 각인시킨 것은 김광석의 해석이었다. 병역은 한국 사회에서 제도적 의무이자 집단적 경험이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이 겪는 두려움, 불안, 상실감은 공식적인 언어로 표현되기 어렵다. 「이등병의 편지」는 군 입대를 앞둔 청년이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을 빌려와, ‘국가’와 ‘제도’라는 추상적 틀 아래 가려져 있는 개인의 감정을 애뜻하게 끄집어낸다.

김광석의 목소리는 여기서 과장된 애국심이나 영웅적 서사를 대신해, 미안함, 그리움, 막연한 두려움을 담담하게 전달한다. 이것은 제도와 감정, 공적 의무와 사적 사랑이 만나는 지점에서 탄생하는 서사이며, AI로 합성된 ‘군가 스타일 음악’이 쉽게 담아낼 수 없는 감정의

충위를 보여준다.

(3) 「그날들」과 「사랑했지만」, 미완의 감정과 책임 있는 슬픔

「그날들」과 「사랑했지만」은 이별과 미련, 후회와 망설임을 다룬 곡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노래들이 명확한 해석이나 교훈, 완전히 정리된 감정 상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랑이 완전히 정리되거나 승화되지 않은 채, 여전히 남아 있는 감정의 잔향이 노래의 끝에 남는다.

이것은 오늘날 K-드라마나 상업영화가 선호하는 극적인 해결, 해피엔딩과는 다른 감정 구조이다. 김광석의 노래는 “삶에는 정리되지 않는 감정들이 남는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청자로 하여금 그런 미완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도록 이끈다. 이 책임 있는 슬픔은 현실의 삶이 갖는 복잡성과 모호함을 그대로 견디게 만드는 정서적 훈련이기도 하다.

이처럼 그의 대표곡들은 AI가 계산한 감정 공식이나 알고리즘이 선호하는 단순한 감정 곡선과 달리, 정리되지 않는 감정, 말로 다 설명되지 않는 불안, 살아 있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슬픔을 보여준다.

3.4. 김광석을 기억하는 장소, 추모의 문화

김광석은 생전의 활동을 넘어, 사후에는 기억과 장소, 추모 문화가 결합된 하나의 문화적 장치로 자리 잡았다. 대구의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곳곳에 그려진 벽화와 조형물, 그의 이름을 내건 헌정 공연과 앨범, 뮤지컬과 영화는 이미 잘 알려진 사례이다. 이것은 개별 팬덤의 추억을 넘어, 김광석이라는 존재가 도시 재생, 지역 브랜드, 대중음악사, 관광 산업과 교차하는 상징적 대상으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

박순호는 대구의 ‘김광석 길’을 집단기억의 장소로 해석하면서, 이 공간이 단순한 관광 코스를 넘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해석하는 기억의 실천 장이 될 수 있음을 논의했다. 벽화와 조형물, 거리 공연과 같은 요소들이 고인의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소환하며, 동시에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이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그 위에 덧입히는 과정을 통해, 이 거리가 지배적 질서에 대한 상징적 저항과 대안적 정체성 형성의 공간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⁷

이러한 추모 문화는 김광석을 ‘과거의 가수’로 박제하는 대신, 현재형 감정의 플랫폼으로

7 박순호, (2020).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의 장소 만들기와 장소성.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3(4), 438-453.

재구성한다. 그의 노래는 개인에게는 사적인 기억과 위로를 제공하고, 도시에 대해서는 브랜드와 장소성을 부여하며, 공동체에게는 감정을 나눌 언어와 정서적 공명을 제공한다.

AI 기반 디지털 음악 시대에 이 같은 추모 문화가 갖는 의미는 작지 않다. 디지털 환경에서 음악은 언제든지 스트리밍되고,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추천하는 익명의 트랙 중 하나로 소비되기 쉽다. 그러나 김광석의 음악은 특정한 장소와 기억, 몸의 경험과 결합된 형태로 보존되고 재생산된다. 이것은 음악이 물리적, 사회적 공간과 만나면서 비로소 살아 있는 정체성을 획득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결국 김광석을 둘러싼 기억과 추모의 문화는, 그를 단순한 ‘추억의 가수’라기보다 콘텐츠 범람 시대에 역행하면서도 꾸준히 소환되는 오래된 노래, 살아 있는 콘텐츠로 위치시킨다. AI로 손쉽게 생성되는 수많은 음악들 사이에서, 한 사람의 목소리, 이야기, 장소가 여전히 강한 정서적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은, 디지털 시대의 음악 환경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이 점에서 김광석은 단순히 “한 시대를 대표하는 가수”가 아니라, ‘AI 기반 디지털 음악 콘텐츠의 시대에 인간적 감수성과 정체성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하는 하나의 문화적 사례이자, 그 자체로 하나의 이론적 텍스트라 할 수 있다.

4. AI 기반 디지털 음악 콘텐츠의 시대, 김광석 음악의 문화적, 정서적 의미

AI 기반 콘텐츠가 음악의 생산, 유통, 소비 구조를 급격하게 재편하는 시대에, 김광석의 음악은 단순한 추억의 산물이 아니라 다른 감정의 속도와 깊이를 요청하는 문화적 징후로 읽힌다. 이 장에서는 그의 음악을 중심으로 첫째, 느리고 투박한 감수성의 의미, 둘째, 진정성의 재구성, 셋째, 인간의 목소리와 불완전성의 미학, 넷째, 일상적 정서와 관계적 음악성이라는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 네 가지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AI 시대에 김광석의 음악이 갖는 회귀적 감수성의 구조를 형성한다.⁸

8 김소희. (2016). 김광석의 음악세계에 새겨지는 껴안는 문화적 분위기로의 환기: 도시인의 숨겨진 내러티브 발견과 감각과장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연구, 16(4), 147-165.

4.1. ‘느리고 투박한 감수성’의 회복: 기술적 매끄러움의 시대에 대한 반성적 태도

이 글에서 사용하는 ‘느리고 투박함’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레트로 취향이나 기술적 복고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기술이 제공하는 완벽한 매끄러움과 정교함의 논리를 의식적으로 거스르는 태도, 즉 창작자가 자신의 감정과 목소리를 과도하게 편집하거나 정리하지 않고, 감정의 모호함과 미완성을 그대로 두는 정직한 창작 윤리를 의미한다.

디지털 플랫폼과 알고리즘은 빠른 속도, 자극적 정보, 명료한 감정 구조를 선호하며, 그 속에서 예술은 정형화된 패턴을 따라갈 것을 요구받는다. 그러나 김광석의 노래는 느림—시간의 정직함, 투박함—삶의 흔적, 미완성—감정의 여백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여준다. 이것은 오늘날의 AI 기반 음악이 선호하는 감정 공식(짧은 후렴, 강한 인트로, 빠른 흡입력)과 철저히 다르다.

그의 목소리는 빠르게 소비되는 콘텐츠의 속도에서 벗어나 감정이 흐르고 머무는 시간의 리듬을 만들어내며, 정리되지 않은 감정의 상태를 청자에게 그대로 허용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투박함’은 단순히 기술적 미숙함이 아니라, 감정의 진폭을 보존하려는 미학적 선택이다. 즉, 김광석의 음악은 과잉된 감정과 속도의 시대가 놓치고 있는 감정의 지속성과 사유의 시간을 다시 열어 준다.

4.2. ‘진정성’의 재부상: AI 시대의 감정, 윤리, 공동체의 문제

기존의 대중음악 담론에서 ‘진정성’은 상업성의 반대편에 놓인 개념으로 단순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생성형 AI가 인간의 작법과 감정 기교를 모방하게 되면서, 진정성의 개념은 다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AI 기반 음악은 ‘그럴듯함’은 쉽게 만들어내지만, 그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 감각이 어떤 맥락과 책임을 지니는지, 그 노래가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되돌려지는지에 대해 대답하지 못한다. 이 지점에서 김광석의 음악은 새로운 방식으로 진정성을 재조명하게 한다.

그의 노래는 특정 개인의 삶을 그대로 옮겨 적은 기록이라고만 할 수는 없지만, 자기 감정을 과도하게 미화하거나 조작하지 않는 정직함, 타인의 삶을 이해하려는 조심스러운 거리감, 공동체적 정서와 연결될 수 있도록 감정의 여백을 남기는 방식을 보여준다. 김광석의 진정성은 곧 “감정의 근원과 책임에 대한 윤리적 태도”로 이해될 수 있다.

AI 시대에 진정성은 더 이상 기술적으로 ‘누가 만들었는가’만의 문제가 아니며, 감정의 진정한 발화자가 누구인가, 그 감정이 어떻게 공동체의 언어가 되는가의 문제로 확장된다. 김광석의 음악은 바로 이 지점을 가장 정교하게 증명해주는 사례이다.

4.3. 인간의 목소리와 불완전성의 미학: AI가 대체할 수 없는 감정의 층위

AI 기반 음성 합성 기술은 음정의 정확성, 박자의 안정성, 음색의 매끄러움에서 인간의 목소리를 능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술이 아무리 완벽한 음향을 구현하더라도, 삶의 흔적이 남아 있는 인간의 목소리는 대체되기 어려운 감정의 층위를 가진다. 실제로 음성 딥페이크 탐지 연구에서도 불완전성, 미세한 음색 변화, 자연스러운 호흡과 떨림이 중요한 구분 지표로 활용된다.⁹

김광석의 목소리는 이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의 목소리는 음성학적으로 완벽한 기준에 맞지 않을지 몰라도, 약간의 떨림, 호흡의 끊김, 감정의 흔들림 등 기계가 모사하기 어려운 ‘삶의 잔결’을 담고 있다. 이 잔결은 청자의 감정과 공명하며, 마치 “함께 흔들려 주는 존재”와 대면하는 효과를 낳는다.

AI 보컬은 감정을 계산하여 투사하지만, 김광석의 목소리는 감정을 살아 있는 상태 그대로 공유한다. 이 차이는 단순히 기술의 차원이 아니라, 감정이 갖는 인간적 조건의 차원이다.

따라서 김광석의 목소리는 AI 기반 음악 시대에 대체 불가능성의 증거, 즉 인간 예술의 고유한 가치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4.4. 일상성과 관계적 음악성: 도시민의 정서, 공감, 연대의 문화

김광석의 노랫말은 영웅적 서사나 거대한 성공담을 다루지 않는다. 그의 음악은 취업과 실업, 사랑과 이별, 병역과 가족, 나이 듦과 후회 등 일상적이고 소박한 현실을 중심에 둔다. 그러나 이 일상은 ‘하찮음’이 아니라, 삶의 존엄이 드러나는 자리로 재해석된다.¹⁰

그는 일상의 감정을 개인적 서러움이나 자기 연민으로만 해석하지 않는다. 오히려 청자가

9 정진주. (2025). 로파이(Lo-Fi) 음악의 미학적 특성과 경향: 불완전성의 미학과 디지털 시대의 음악적 수용. 대중음악, 35, 203-230.

10 김이섭. (2012). 권력의 허구성과 도시민적 속성, 그리고 청소년기의 자아감정에 대한 고찰: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와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중심으로. 독어교육, 53, 267-290.

자신을 투사할 수 있는 감정의 여백을 열어 둔다. 이 때문에 그의 노래는 특정 개인의 고백을 넘어, 한국 사회의 소시민들이 공유하는 감정의 구조, 즉 집합적 정서를 담는 장이 된다.

AI 시대의 음악은 알고리즘 추천을 중심으로 소비되며, 청취는 점점 비관계적, 자동화된 방식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김광석의 음악은 여전히 사람이 사람에게 건넬 수 있는 음악으로 기능한다. 그의 노래 가사는 단순한 가사가 아니라, 관심, 연대, 경험의 공유라는 관계적 의미를 지닌다.

김광석의 음악은 바로 이 관계적 문화가 작동하는 ‘장치’로서 기능한다. AI가 감정을 흉내 낼 수는 있지만, 사람의 삶이 담긴 음악은 다시 사람이 선택하고 건네주는 과정을 통해 살아남는다. 이 점에서 그의 음악은 콘텐츠 범람 시대에도 지속 가능한 정서적 공동체의 기반을 제공한다.

AI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김광석의 음악은 기술 중심의 문화 환경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하는 중요한 감수성의 장치로 기능한다. 그의 노래는 먼저 ‘느림’과 ‘투박함’의 미학을 통해, 속도와 효율을 절대적 가치로 여기는 디지털 시대에 인간적 시간의 흐름과 감정의 여백을 회복하도록 이끈다. 더불어 그의 음악은 진정성의 의미를 단순히 “직접 쓴 노래”의 차원을 넘어, 감정이 어떤 삶의 맥락에서 비롯되고 어떻게 공동체 속에서 공유되고 되돌려지는지 묻는 확장된 개념으로 제시한다. 또한 음성의 떨림과 호흡, 미세한 흔들림처럼 기계가 모사할 수 없는 인간적 불완전성을 통해, AI가 결코 대체하지 못하는 감정의 층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마지막으로 김광석의 노래는 소시민적 일상성과 관계적 음악성을 기반으로, 피로와 과잉의 시대에도 타인과의 연대와 공감이 여전히 가능함을 보여준다. 요컨대 그의 음악은 AI 기반 디지털 음악 시대가 잃어버린 감정의 리듬과 깊이를 되돌려주는 회귀적 감수성의 가장 뚜렷한 사례이며, 기술의 확장 속에서도 인간적 감수성이 어떤 방식으로 보존되고 재구성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게 하는 하나의 문화적 텍스트라 할 수 있다.

5. 마무리와 과제

AI 기반 디지털 음악 콘텐츠가 무한히 생성되고 복제되는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오래 기억하고 왜 특정 음악에 다시 회귀하게 되는지를 질문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기술적 속도와 매끄러움이 지배하는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남는 것이 인간적 흔들림, 여백, 완성의

감정임을 확인하였다. 바로 이 지점에서 김광석의 음악은 오늘의 시대와 다시 만난다.

김광석의 노래는 기술적 정교함이 아니라 삶의 곁을 숨기지 않는 목소리, 미완의 감정, 소시민적 일상의 정서, 관계 속에서 전달되는 음악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AI 기반 디지털 음악 콘텐츠가 제공하는 표준화된 감정과는 다른 시간, 다른 감각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김광석의 목소리와 노랫말은 기계가 모사할 수 없는 감정의 층위를 드러내며, 인간적 경험의 깊이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문화적 기준점이 된다.

따라서 김광석의 음악은 단순한 향수의 대상이 아니라, AI 시대에 인간적 감수성이 어떻게 보존되고 재구성되는가를 보여주는 실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그의 음악은 빠른 소비가 아니라 다시 듣기·다시 찾기·관계적 추천을 통해 지속되고, 알고리즘의 흐름이 아닌 사람과 사람의 연결 속에서 살아남는다.

앞으로의 과제는 명확하다. 창작자는 감정의 흔들림을 작품 속에 남기는 느린 창작의 윤리를 고민해야 하며, 유통자는 속도 중심의 지표를 넘어 지속성과 관계성을 고려하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음악이 사람과 장소를 통해 기억되는 방식, 관계적이면서도 공간적 음악 경험을 확장하는 문화적 장치가 필요하다. 즉, 김광석의 음악은 AI 기반 디지털 음악 콘텐츠 시대에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감정의 기준이며, 인간에게로 돌아가는 감수성의 경로를 보여주는 하나의 문화적 지표이다.

[References]

- Baudrillard, J. (2012). *Simulacra and simulation* (Korean trans. edition). Minumsa.
- Chaiwongyen, A., et al. (2022). Contribution of timbre and shimmer features to deepfake speech detection. *APSIPA ASC*.
- Debord, G. (1996). *The society of the spectacle* (Korean trans. edition). Hyeonshil Munhwa Yeongu.
- Frith, S. (1996). *Performing rites: On the value of popular music*. Harvard University Press.
- Han, B. C. (2012). *The burnout society* (Korean trans. edition). Moonji Publishing.
- Jang, D. (2024). Social surplus created by generative AI. *Tauma Jain*.
- Jeong, J. (2025).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and trends of Lo-Fi music: Embracing imperfection in the digital age. *Daejung Eumak (Journal of Popular Music)*, 35, 203-230.
- Kim, I. S. (2012). A study on the fictitiousness of power, petit bourgeois attributes, and adolescent self-emotions: Focusing on Hermann Hesse's *Beneath the Wheel* and Lee Mun-yeol's *Our Twisted Hero*. *Doge Gyoyuk (German Language Education)*, 53, 267-290.
- Kim, S. H. (2016). Inducement to “embracing cultural mood” engraved in the music world of Kim Gwangseok: Focused on discovery of narrative hidden inside dwellers and wave of senses. *Munhwa San-eop Yeongu (Journal of Cultural Industry Studies)*, 16(4), 147-165.
- Lee, Y. O. (2009). *Kim Gwangseok pyeongjeon [A biography of Kim Gwangseok]*. Sechang Media.
- Park, S. H. (2020). The process of place-making and the placeness of the ‘Kim Gwang-seok Road’ in Daegu. *Hanguk Gyeongje Jirihak Hoeji (Journal of the Korean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23(4), 438-453.
- Srnicek, N. (2017). *Platform capitalism*. Polity Press.
- Zuboff, S. (2019). *The age of surveillance capitalism*. PublicAffairs.

AI 기반 디지털 음악의 과잉 시대, '김광석'의 가치와 의미 - 정체성과 아날로그 감성의 회귀 -

함현택

독립연구자

한국어 요약

연구 목적 이 연구는 AI 기반 디지털 음악의 과잉 생산과 알고리즘 중심 감정 구조 속에서 인간적 감수성이 어떻게 재구성되는지를 탐구한다. 기술적으로 매끄럽고 표준화된 환경에서도 김광석의 노래가 지속적 영향력을 갖는 이유를 분석하며, '느리고 투박한 것으로의 회귀'가 지니는 문화적 의미를 밝힌다. 이를 통해 AI 시대에 음악적 정체성과 진정성이 어떻게 확장되고 변형되는지를 고찰한다.

연구 방법 이 연구는 보드리야르를 비롯한 기존의 문화이론과 AI 기반 콘텐츠 연구를 바탕으로 이론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김광석의 생애, 대표곡, 공연 방식, 사후 기념 공간을 검토하여 그의 음악이 형성하는 감수성 구조를 해석하였다. 문헌 분석과 텍스트, 서사, 음악적 특징에 대한 질적 해석을 통해 AI 시대의 음악 소비, 기억, 정체성의 문제를 밝혔다.

결론 AI 기반 디지털 음악 환경의 과잉·속도·완벽성 속에서 김광석의 음악은 인간의 흔들림·불완전성·일상성·관계적 감정이라는 회귀적 감수성을 제공함이 드러났다. 그의 노래는 기술적 매끄러움이 대체할 수 없는 정서적 충위를 구현하며, 공동체적 연대와 성찰적 청취를 가능하게 하는 문화적 텍스트로 기능한다. 이는 AI 시대일수록 창작과 감상의 속도를 늦추고, 진정성과 인간적 감수성을 재정립하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핵심어 AI 기반 디지털 음악, 김광석, 진정성, 하이퍼리얼리티, 불완전성의 미학, 아날로그 감수성, 회귀적 정서

이 논문은 2025년 11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5년 11월 25일부터 2025년 12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5년 12월 15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